

##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퍼주기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일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수출길이 막혔으며, 제조강국으로 칭송받던 나라의 공급망이 막혔다. 국민은 빚에 눌러 허덕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만 돌면서 연일 화색이다. 퍼준 만큼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자화자찬 일색이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한탄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걸핏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 제2의 요소수 대란 위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의 주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배터리의 주원료인 흑연, 망간, 코발트, 리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직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한 결과다. 참담하다.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A법의 세부 규정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지분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중국과의 합작을 추진해 온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우리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은 고사 위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IRA법 늑장 대응에 이어 또 한 번 등에 칼을 맞은 셈인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해소 됐다’며 천하태평이다. 이게 우리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영국에서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 협력을 하겠다면서 자랑이다.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가? 영국 정부의 성과 아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할 대상은 영국 황실이 아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집 살림 거덜 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릴 텐가?

윤석열 정부도 곧 있으면 집권 3년 차다. 아직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면 향상의 여지가 없는 무능이다. 더 늦기 전에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헛다리 국정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작금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음의 3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보여주기식 빈손 외교는 그만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서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FEOC(해외우려기업)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결하라. 반드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72조원에 준하는 가치의 대가를 받아내라.

2023. 12. 05.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 태 년